

■ 법률 칼럼

최근 이민 소식

1. 취업이민 소식

1) 취업이민과정중 노동청의 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은 5~6개월 사이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도 오딧이 없는 경우 5~6개월 사이에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또 오딧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2) 그러나 취업이민 미국 수속은 계속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I-140 청원서의 경우 급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주회사들의 청원서가 접수되는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의 경우 평균 11~1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쪽 회사들의 케이스가 접수되는 텍사스 서비스센터의 경우도 평균 10.5~2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I-485 처리도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의 경우 평균 11.5~19개월이 소요되고 텍사스 서비스센터의 경우도 평균 19~45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대부분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아주 간혹 접하는 경우가 있는 합니다).

2. 2022년 3월 이민 문호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이번 3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들은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들은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전 순위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민 상식: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시 지난 거주 주소 정보(16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과거의 거주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난 5년간의 주소만 적어 내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16세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주소를 적어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특히 신청자가 고령인 경우는 해당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대처 방법은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거주 주소와 거주 기간을 적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보는 것입니다. 한국 주소지 정리가 정비된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평생 동안 거주 주소가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초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교육

고교 성적 C는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등학교 성적(GPA)은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GPA는 그 학생이 얼마나 학업에 헌신했는지, 그리고 대학 수업을 잘 수행해낼 능력을 갖추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자신과 비슷한 프로파일을 가졌으면서도 C를 받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해서, 내가 돋보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교육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즈(ADMISSION MASTERS)' (blog.naver.com/amseoulkorea)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가 고등학교에서 C를 받은 과목이 있을 경우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다.



라면, 대학 교육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의심 받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와 고등학교에서 C를 받은 과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려는 학생이 고교 영문학 수업에서 C를 받았다면 AP 물리학 수업에서 C를 받은 것보다는 영향을 덜 끼칠 것이다.

■ 다른 성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가

한 과목에서 C가 나왔더라도 다른 과목들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면, GPA가 여전히 높을 것이다. 물론 타격이 있지만 C 하나로 인해서 'C 학생'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과목들에서 대체로 B를 받고 있다면, C는 GPA를 더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 과외 활동이 눈에 띌 정도로 훌륭한가
성적은 대입에서 분명히 중요하지만 '성적' 만이 고려 대상은 아니다. 입학 사정관들은 정말로 뛰어난 학생들을 찾는다. 보통 상위권 대학들은 성적과 과외 활동, 두 가지 요소를 다 들어다본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국제적 명성을 가진 체스 대회의 우승자일 수 있다. 또 소설을 써서 출판했는데 상당한 호응을 얻었을 수 있다. 이처럼 두드러진 성취를 가진 학생이라면 다른 지원자들과 확실한 차별화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이런 성취가 없는 지원자들과 비교할 때, 성적이 덜 중요하게 평가될 수도 있다.



사진=shutterstock

■ 성적 하향 트렌드는 불리

고려해야 할 것은 언제 C를 받았는가'이다. 만약 9학년 성적에 C 하나가 있다면 앞으로 이를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다. 그 다음부터 성적 관리를 잘 해서 상향 트렌드를 만들면 된다. 그러나 11~12학년에 C를 받는다면 큰 흠이 될 수 있다. 대입을 앞둔 시기에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입학 사정관이 보기에는 '빨간 불'이 될 수 있다.

■ 어떤 과목인가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이나 비학업적 수업에도 성적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PE(체육) 수업에서 C를 받았어도 일부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감점을 주지 않을 수 있다. PE와 관련된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